

견훤[甄萱:李萱] 호랑이 젖을 먹고 자란 후백제의 창 업자

867년(건황 10년) ~ 936년(태조 19)



전 견훤 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

1 요약 정보

견훤(甄萱)은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을 틈타 후백제(後百濟)를 세운 인물이다.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여 세력을 키우고, 연이은 군사적 성공으로 후삼국 시대의 주역이 되었으나 아들의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2 출생과 성장

견훤은 867년 상주(尙州) 가은현(加恩縣)(지금의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에서 아자개(阿慈介)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자개는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으나 후에 가문을 일으켜 장군이 된 인물이다. 견훤의 원래 성은 이(李)씨였는데 후에 견(甄)으로 바꾸었다고 전하지만 분명하지 않다.

관련사료

견훤의 출생과 관련해 광주(光州)(지금의 광주광역시) 출생설도 전한다. 광주 북촌에 사는 한 부자의 딸에게는 밤마다 찾아와 관계하는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의 옷에 실을 꿰 바늘을 몰래 꽂아 두었더니, 다음 날 담장 아래 바늘이 꽂혀 있는 큰 지렁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견훤은 지렁이의 자식인 셈이다. [관련사료](#)

견훤에 대해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승이 있다. 그가 아직 포대기에 있을 무렵 아버지가 들에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밥을 가져다주려고 아이를 수풀 아래에 두었는데 호랑이가 나타나 젖을 먹였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를 실제로 볼 수는 없으나, 견훤이 호랑이를 연상케 하는 강렬한 무인의 풍모를 지닌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장성한 견훤은 모습이 웅장하고 기이했으며 기개가 범상치 않았다고 한다. 견훤은 군인이 되어 서남쪽 해안을 지키게 되었는데 창을 베개로 삼아 잘 만큼 철저하게 적을 대비하였고 그 공로로 비장(裨將)이 되었다.

3 난세를 만나 몸을 일으키다

892년(진성여왕 6) 신라 중앙의 집권력이 약화되고 전국적으로 민란이 발생한 상황에서 견훤 역